

국토정책 *Brief*

제 282 호
2010. 6. 21

일본 국토교통성(國土交通省)의 성장전략과 시사점

이동우 수도권전략센터장(국토연구원)

- 일본의 국토교통성(國土交通省)은 2010년 5월 17일에 미래성장분야로 ① 해양, ② 관광, ③ 항공, ④ 해외진출과 관·민협력, ⑤ 주택·도시의 5분야를 선택하고, 분야별 발전전략 및 장·단기 실천 로드맵을 발표함
 - 인구감소 및 고령화사회의 도래, 치열한 국가 간 경쟁 속에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자세와 강력한 의지로 국가성장전략을 구축하고, 정치·행정·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검토를 착수함
 - 2009년 10월에 기업인·학자·시민단체 대표 등 총 11인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「국토교통성 성장전략회의」를 조직하였으며, 13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됨
 - 성장전략에서는 한정된 파이의 분배에 의존하는 종래형 메커니즘을 탈피하여 ① 최신의 ICT기술을 장착하고, ② 민간의 지혜와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며, ③ 밖으로 열린 해외지향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함
 - 제시된 전략실천 방안들은 2011년도 예산 반영대상, 2~3년 이내 추진대상, 장기적 추진과제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
- 일본 국토교통성의 성장전략 수립사례는 국토해양부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
 - 국내에서도 현재 국토연구원 등 유관 6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국토해양연구회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전략을 모색 중임
 - 일본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전략 발굴 노력이 필요함

1. 일본 국토교통성 성장전략의 개요

● 검토배경

-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여건변화를 기회로 포착하여 일본의 성장을 도모함
 - 선진국들이 경제위기에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, 중국·인도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고도성장이 계속되고 있음
 - 이는 새로운 기회로서, 아시아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정치·행정·국민이 하나가 되어 상호 협력해 나가는 체제 구축이 필요함
-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성장메커니즘의 대담한 전환을 모색함
 - 지금까지의 국토교통성 소관산업은 공공투자 의존도가 높고, 다양한 규제로 보호되어 있는 국내지향적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었음
 - 일본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정된 파이의 분배에 의존하는 종래형 메커니즘을 탈피하여 ① 최신의 ICT기술을 장착하고, ② 민간의 지혜와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며, ③ 밖으로 열린 해외지향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파이의 확대를 도모하여 나가야 할 것임

● 향후 국토교통성 정책의 기본원칙 설정

- 국내지향적이고 재분배 중심적인 기존 메커니즘의 탈피 및 새로운 시장환경 구축을 위하여 향후 국토교통성 정책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
 - 공공투자 사업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‘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성장’이라는 대원칙하에서 ‘국토의 균형발전’으로 대표되는 갈라먹기식 재분배정책에서 탈피하고, ‘비용 대 효과’에 입각한 집중적 공공투자를 실시함
 - 지역과 기업의 창의에 바탕한 지역발전 촉진을 위하여, 성장의 축쇄 역할을 하고 있는 각종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민간의 새로운 제안과 대담한 경영을 장려함
 - 개인금융자산의 공공투자 활용 등, 민간의 지혜와 자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구조를 도입함
 -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·민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, 적극적으로 인재를 육성함

● 5대 성장분야의 선정 및 분야별 성장전략

- 국토교통성 소관 산업분야 가운데 해양, 관광, 항공, 해외진출과 관·민협력, 주택·도시의 5대 분야를 특히 발전이 기대되는 미래성장분야로 선정하고, 대담한 정책제안을 시도하고 있음
- 해양분야는 「해양입국 일본의 복권」이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서 정부의 역할을 ‘인프라 정비’와 ‘규칙 제정’에 국한하고, 이외의 업무는 민간 위임을 추진함
 -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‘해양인프라 이용 편리성의 획기적 개선’과, ‘국제기준 형성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제고’의 두 가지 설정
 - 정책과제는 ① 항만력(港灣力) 발휘, ② 해운력(海運力) 발휘, ③ 조선력(造船力) 강화의 3개 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, 과제별로 구체적인 시책내용이 단기, 중기, 장기로 구분되어 제시됨
 - 시책 가운데 특히 항만기능의 근본적 개선과, 외항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행 시책으로 설정함
- 관광분야는 「관광입국 일본」이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서 3대 전략, 7대 전술을 제시함
 - 첫 번째 전략은 ‘방일(訪日) 외국인여행자 유치전략’으로서 구체적으로 ① 방일 외국인 3천만 명 프로그램 전개, ②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해외홍보 등의 미디어전략, ③ 해외설치 관광홍보기관에 의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의 전술을 제시함
 - 두 번째 전략은 ‘관광지의 매력도 향상전략’으로서 ④ 문화·스포츠·의료 등 타 분야와의 융합에 의한 관광 촉진 등 새로운 관광아이템 창조, ⑤ 창의적 관광지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인재육성 등의 전술을 제시함
 - 세 번째 전략은 ‘관광입국 추진을 위한 기반 정비 및 국민의식 개혁전략’으로서 ⑥ 휴가분산제 도입, ⑦ 국민적 관광마인드 육성 등의 전술을 제시함
- 항공분야에서는 ① 나리타, 하네다 등 수도권공항의 용량 부족과 허브기능 결여, ② 항공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항·항공회사의 고비용·적자체질 등 두 가지를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① 수도권공항의 확충을 통한 수도권 도시경쟁력 향상, ② 「민간의 지혜와 자금」의 철저한 활용, ③ 「자의적 행정개입 극소화」를 비전으로 설정함
 -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① 일본의 하늘을 아시아 및 세계에 개방하기

위한 “오픈 스카이” 정책 추진, ② 수도권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네다·나리타 공항 확충, ③ 민간의 지혜와 자금을 활용한 공항경영의 획기적 효율화, ④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간사이공항의 기능 강화, ⑤ 꼭 필요한 항공네트워크만 유지, ⑥ 저비용 항공사(LCC)의 진입촉진을 통한 이용자메리트 확대 등 6가지 전략을 제시함

- 해외진출과 관·민협력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건설·운수·인프라 관련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, 국내적으로는 민간의 창의력에 입각한 관·민협력(Public-Private Partnership: PPP)과 민자유치(Private Finance Initiative: PFI)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전략적·중점적으로 정비한다는 기본인식하에서 전략을 설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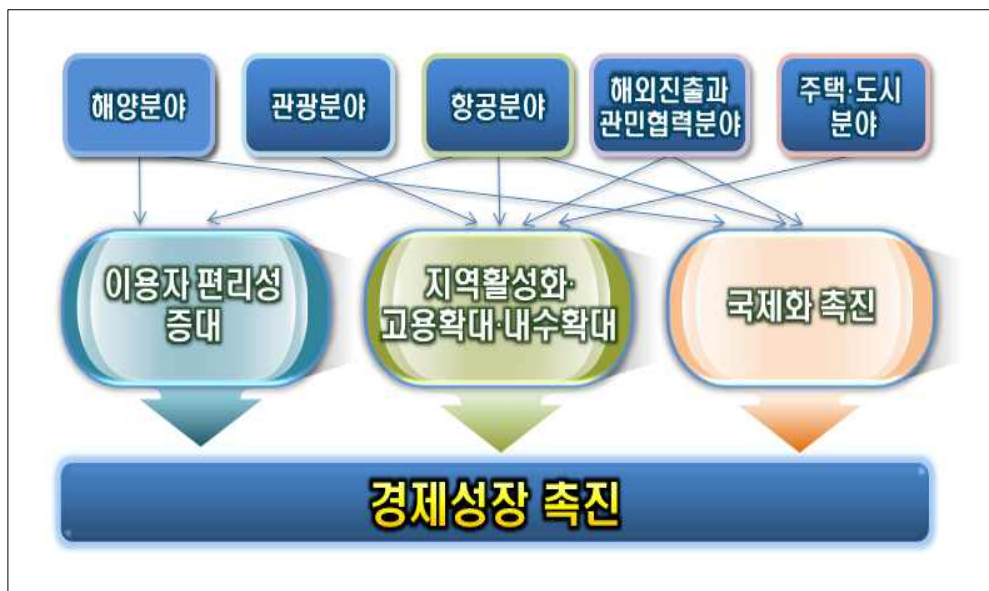
- 해외진출 일본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전략으로서는 ① 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관·민일체의 톱 세일즈 전개와 국토교통성 내 및 범부처적 지원조직·체제 창설, 기업의 글로벌 인재육성 및 조직 강화 지원, ② 국내 스탠더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일본 기술·규격의 국제표준화 채택 추진, ③ 정부의 금융지원기능 강화 등을 제시함
- 인프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자금노하우 활용전략으로서는 ① 시설 소유권이 전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인프라 사업운영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장기간 부여하는 컨세션(concession)방식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, ② 도로, 항만 등 공물(公物) 관리권에 대한 민간 부분개방 및 규제완화 추진 등을 제시함
- 이와 함께 개별프로젝트로서, 공항사업에 대한 컨세션방식 도입, 항만경영 민영화, 기존 도로의 상하공간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도로정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“도로공간 오픈화”, 하수도사업에 대한 민간 첨단기술 도입, 기타 하천·지하가(地下街)·교통결절점·도시공원·공영주차장·소수력발전·클린에너지발전·광파이버네트워크·전선공동구 등의 행정재산에 대한 상업적 이용방안 검토 등을 제시함

- 마지막으로 주택·도시분야에서는 국가성장을 위한 미래전략으로서 3개의 대전략과 6개의 구체적 전략을 제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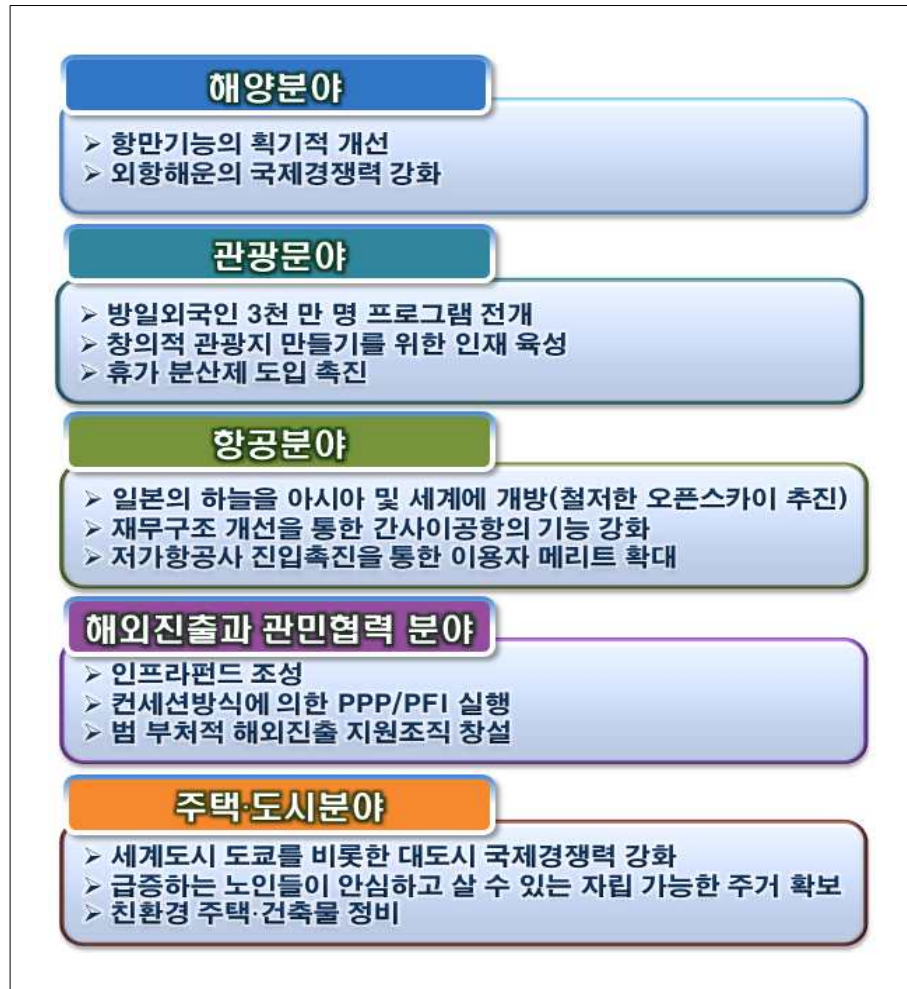
- 첫 번째 대전략은 ‘대도시 이노베이션 창출전략’으로서,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① 세계도시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 국제경쟁력 강화를 제시함
- 두 번째 대전략은 ‘지역잠재력 발현전략’으로서,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② 새로운 주체에 의한 자발적·전략적 지역·도시만들기 촉진, ③ 도심거주·콤팩트시티 유도 등을 제시함

- 세 번째 대전략은 「주택·건축투자 활성화 및 스톡재생전략」으로서,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는 ④ 고품질의 신축주택 공급 및 중고주택 유통과 리폼 촉진을 통한 주택 시장 활성화, ⑤ 급증하는 고령자들이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자립가능한 노인주거 확보, ⑥ 친환경적인 주택·건축물 정비 등을 제시함
- 주택·도시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제안 중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대도시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슈토켄(首都圏)정비법, 추부켄(中部圏)정비법, 긴키켄(近畿圏)정비법 등 기존의 대도시권정비법 대신에 가칭 「대도시권전략기본법」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
- 이는 일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등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5~10년 후에는 도쿄의 위상조차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의식이 배경으로 작용함
- 일본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‘국가전략적 관점’에서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 국제경쟁력 강화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서, 2011년까지 국가가 직접 「대도시권 전략」을 책정할 예정임

[그림 1] 달성 목표와 분야 간 상관관계



[그림 2] 분야별 우선시행 시책



● 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

■ PDCA 사이클과 전략적 공정관리체계를 정비함

- 전략이 ‘그림속의 떡’이 되지 않도록 단기(2011년도 예산반영을 포함한 조기), 중기(2~3년 이내), 장기(대체로 2020년 목표)의 로드맵을 명시함
- 정책운영에 관한 PDCA(Plan, Do, Check, Act)사이클의 효과적 순환을 도모함

■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지속적 추진체제를 구축함

- 정치적 리더십하에서 국가전략실 등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부처 간 이해 대립을 해소하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
-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협조를 요청함

2. 분야별 성장전략과 실천계획

1) 해양분야

전략	조기 실천사항 (2011년 예산반영사업 포함)		2~3년 내 실천사항	장기방향
항만력 발휘	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	• 국제 컨테이너 전략항만 선정 (2010년 6월 경)	• 2015년까지 국내허브항만 완성 • 동아시아 주요 항에서의 일본 출발 · 도착 화물 환적비율을 반으로 줄임 – 민(民)의 관점에서 항만경영 – 내항 등 피더망 강화를 통한 화물 집약 – 컨테이너선 대형화에 대응	• 2020년까지 동아시아 주요 항으로 선택될 수 있는 항만 목표
		• 국제 벌크전략 항만 선정 (2011년 말 경)	• 국제 벌크항만을 중심으로 주요 국제벌크화물의 안정적 수송 – 민(民)의 관점에서 항만경영 – 수송선 대형화에 대응 – 국제 벌크화물 대량 일괄조달을 위한 기업연계 촉진	
		• 전략항만을 중심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, 값싸고 안정적인 물자 수송 실현		
	• 안전하고 안정적인 여객선 입항 실현 및 관광사업 관계자와 연계한 여객 편리성 증진			
해운력 발휘	• 외항해운 관계 조세제도의 전략적 재검토 – 톤수 표준세제를 외국 수준으로 확충 – 선주에 대한 선박 특별상각제도, 매환(買換)특례제도 유지·확대 – 선박 등록면허세, 고정자산세 경감			•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 여 대응
	• 일본 국적 선박의 설비 및 선원자격에 관한 절차 재검토			• 국제적 동향을 감안하 여 대응
	• 우수 선원의 확보 · 육성을 위한 기반 정비			
조선력 강화	• 일본 상선대(商船隊)를 서포트하는 내항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저탄소화 · 대형화 · 그룹화 유도를 위한 조세제도 재검토			• EEZ의 관리 · 개발 · 이 용에 공헌할 수 있는 조선 기술의 고도화 및 해양산 업 육성을 위한 관 · 민 연 계 및 협력 강화
	• 혁신적인 선박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 · 보급			
	• 일본 주도하에 국제해운 분야의 온난화 방지대책 등 국제 규칙 책정			

주: EEZ=Exclusive Economic Zone(배타적 경제수역)

2) 관광분야

전략		조기 실천사항(2011년 예산반영사업 포함)	2~3년 내 실천사항	장기방향
외국인 여행자 유치 전략	방일 외국인 3천만 명 프로그램 전개	• 해외홍보 주무기관인 일본정부관광국(JINTO)의 체제 강화 및 해외시장별 방일 여행지수 목표 설정, 철저한 성과주의 채택 • 중국인 방일비자 취급공관 확대, 발급조건 재검토 • 외국인여행자 수용체제 정비 • 시책의 실시·검증을 위한 인바운드관광 추진검토위원회 설치	• 숙박시설 외국어사용 촉진 을 위한 외국인연수자, 유학생 활용 확대 • 외국인 인재활용을 위한 장학금제도 창설 및 인턴십제도 보급 촉진 • 관광 관련대학의 국가 간 교류 촉진	• 국제여행시장의 동향에 입각하여 철저한 PDCA사이클에 의한 3천만 명 프로그램 추진
	미디어 전략	• 일본미디어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한 홍보 전략 구축 • 새로운 캐치프레이즈 개발·보급 • 블로그·트위터 등 활용 해외홍보방안 강구 • 해외미디어전략 전문작업팀을 조직하고 종합적 전략 작성	• 해외 현지 에이전트의 적극적 이용 도모 • 외부전문가 활용 미디어전략 수립, 홍보체제 강화	
	ICT 활용 국내 관광 고도화	• 문화시설 등의 다언어화를 위한 구체적 시책 검토 • 일정구역 내에서 ICT 활용 관광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효과 검증 • 고령자·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이동 지원	• 일본의 문화·습관·역사 해설 및 외국인대응 노하우를 수록한 정보은행을 인터넷에 개설 검토 • 다언어표시가 가능한 휴대폰단말기를 활용하여 정보 제공	• 입국해서 귀국할 때까지 사이버 미디어 편의 및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
	원스톱 서비스 제공	• 해외 주요 도시에서 관광정보 제공 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추진	•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 및 해외홍보기관의 창구업무 일원화, 주재원 확충	• 주요 재외공관에 세일즈·홍보 전임영사 배치 등 거국적 홍보활동 강화
관광지 매력도 향상 전략	새로운 관광아이템 창조	• 문화·예술·스포츠 등 새로운 일본방문 수요 개척 • MICE의 적극적 유치·개최 추진 • 크루즈 진흥시책 구체화 • 카지노 포함 종합리조트 개발검토	• 동계리조트, 의료관광 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거점 발굴 • 관광거점 잠재력이 있는 지역 선정, 범정부적 지원 • 크루즈 관련규제 완화	•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거점 정비 실현
	규제완화 및 인재육성	• 관련규제 완화방안 검토 • 지역별로 「관광지역만들기 플랫폼」을 설치하여 지역의 창의를 발굴하고, 폭넓은 인재 육성	• 규제완화방안 지속 검토 •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광보조금의 일괄교부금화	• 창의적 관광지만들기, 인재 육성 추진
관광 입국 기반 구축	휴가분산화 추진	• 봄·가을에 대형연휴를 지역별로 설정하는 등 휴가분산화 방안 검토	• 대형연휴를 통한 신규수요 창조	• 휴가개혁을 통하여 휴가에 대한 국민의 식 변혁 도모
	국민적 관광마인드 육성	• 연차유급휴가의 연속이용 촉진방안 검토 • 관광통계 정비 촉진	• 유급휴가 강제화 검토 •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‘여행하는 마음’ 배양	• 연차유급휴가의 완전사용 목표

주: MICE=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, PDCA=Plan, Do, Check, Act

3) 항공분야

전략	조기 실천사항(2011년 예산반영사업 포함)	2~3년 내 실천사항	장기방향
[전략1] 일본의 하늘을 세계, 아시아에 개방(철저한 오픈스카이 추진)	철저한 오픈스카이 추진 • 주요 국가 간 협의 개시 • 포워더차터, 제3국 항공회사의 차터 해금 추진	• 주요 국가 간에 빠르면 2012년까지 실현 전망 • 수도권공항은 단계적 자유화, 간사이·츄부공항은 화물허브화를 위한 획기적 자유화 추진	
	국제항공사업 규제의 종합적 자유화 • 진입 촉진 환경 정비, 운임규제·차터규제 완화	• 오픈스카이의 진척 정도에 연동하여 추가적 규제완화	
[전략2]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하네다나리타 확충	하네다의 24시간 국제거점공항화 • 주간 33.1만 회, 심야·조조 4만 회 실현 • D활주로를 포함한 새로운 운용방식 개시 • 최저환승소요시간(MCT) 단축	• 2011년까지 주간 35만 회로 확충 • 새로운 운용방식 정착	• 2011년까지 주간 40만 회로 확충 • 수요동향에 따른 추가 용량확대 강구
	하네다 신국제선여객터미널 확충 • 신국제선여객터미널 확충 착수	• 확충작업 추진	• 주간 6만 회 수준에 대응한 터미널 확충
	나리타를 아시아 유수의 허브공항 지위확립 • 30만회 목표로 지역주민과 조정 • 주기장 등 증설 준비	• 2012년까지 주간 27만 회 • 동시평행이착륙방식 실현 • LCC, 비즈니스제트 대응 • 국내 피더노선 확충	• 2014년까지 주간 30만 회 실현 • 수요동향에 따른 추가 용량확대 강구
[전략3] 민간의 지혜와 자금을 활용한 공항경영 효율화	공항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• 비행공수입을 위한 지대 산정방식 재검토 • 민영화 포함 공항경영방식 전문가간담회 조직	• 2011년에 공항관련기업 경영상황 조사 및 투명화 추진 • 2011년까지 결론 도출	• 공항관련기업과 공항경영일체화, 민간 경영위탁 또는 민영화 추진 • 관계법령 정비 등
	공항정비체계의 세입·세출 항목 개선 • 제3자 기관에 의한 공항정비필요성 정밀조사 • 착륙요금 체계의 재구조 검토	• 착륙요금 체계의 재구조	
[전략4] 간사이공항의 재무구조 개선	간사이공항의 재무구조 개선 • 오사카국제공항과의 경영통합 방안 강구 • 컨세션(concession) 계약 검토	• 경영통합 실현 • 컨세션계약 방식 검토	• 간사이공항 등의 가치극대화를 위한 민간제안 모집
	간사이공항을 국제거점공항으로 재생 • LCC 유치, 화물허브 강화 등	• 간사이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책 계속 검토	• 아시아의 화물허브 및 인바운드 거점으로서의 지위 확립
	오사카국제공항의 활용 증대 • 간사이공항 보완방안 검토	• 간사이공항의 보완공항으로서 활용방안 계속 검토	• 장래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패향을 포함한 대책 강구
[전략5] 꼭 필요한 항공네트워크 유지	파트너십에 의한 항공수송서비스 확보 • 지역과 항공회사 간 파트너십 강화	• 섬항공노선 국가지원 추진 • 항공수송서비스 확보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	• 지역 주도하에 항공수송서비스 확보
	하네다공항의 출발·도착 배정방식 개선 • 시장메커니즘 활용 새로운 slot배분제도 설계	• 2011년까지 새로운 slot배분방식 확립, 2012년에 배분	• 출발·도착 배분방법의 적절성 재검토
[전략6] LCC 진입 촉진을 통한 이용자 메리트 확대	기술규제 완화 • 미국 등과 승무원자격의 상호승인 협의추진 • 외국 국적의 운항승무원 활용 등	•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항공회사의 코스트 삭감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 추진	
	• LCC전용터미널 정비, 착륙요금체계의 재구조 등에 대해서는 전략 1~5와 관련하여 대응		

주: MCT=Minimum Connecting Time(최저환승소요시간), LCC=Low Cost Carrier(저비용항공사)

4) 해외진출과 관·민협력 분야

전략		초기 실천사항(2011년 예산반영사업 포함)	2~3년 내 실천사항	장기방향
해외 진출 일본 기업 지원	리더십, 조직 및 체제 강화	정치적 리더십에 의한 관민일체 톱 세일즈 전개(상대국 정부·국제기구 주요인물 설득, 친서 활용 등)		
		국토교통성의 체제 강화 • 민간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, 정보관리 일원화를 통한 국제화 체제 강화	• 민간기업과의 연계하에서 개별프로젝트 안전별로 전략적 해외진출 실현	• 본격적 해외진출 실현
		범부처적 해외진출지원조직 창설 • 해외진출지원조직 창설 검토	• 범기업적인 일본팀·컨소시엄 창설 육성 등	• 상대국가와의 통상관계 강화, 전략적 연계 추진
		대사관·JETRO 지원조직 강화 • 기술자·전문가 파견, 개별 프로젝트 안전 정보 발굴 및 기업에 제공	• 상대국가와의 교섭창구(파이프) 구축, 프로젝트 조기참여를 통한 일본의 우위성 확보	• 상대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 유지, 여건변화에 연동한 인적자원 재배치 등
		기업 조직·인재의 글로벌화 지원(해외사업 노하우 보유 국내외기업과의 인재교류, 인재정보DB구축 등)		
	스탠더드 정비	국내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개정 • 국제적 발주계약방식 등	• 글로벌 스탠더드 국내적용 확대 • 글로벌 스탠더드 대응 기업지원	• 분야별 글로벌 스탠더드 국내 보급 촉진 등
		일본규격의 국제규격화, 상대국 스탠더드 획득 • 국제기관에 일본규격 적극 제안 • 투자대상국 실정에 맞는 규격 개발	• 국제규격 책정기관에서의 논의 주도 • 일본규격의 국제규격화 실현 • 투자대상국 일본규격 채용유도	• 신기술 개발과 국제규격화의 동시추진으로 일본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립
		기술협력 지원(정책 노하우 제공, 인재육성 지원 등)		
	금융 메커니즘 정비	정부의 금융지원기능 설정 • JBIC의 선진국투자금융제도 적용확대 • JICA를 통한 투융자 재개	• 정부의 인프라개발 및 관련 M&A에 대한 리스크머니 공급	•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기능 강화
		• 관민 파트너십에 의한 인프라펀드 검토	• 인프라펀드 조성 및 인프라투자 지원 실시	• 펀드를 통한 인프라투자 지원, 신용보완 추진
		• ODA예산(엔차관·무상자금 공여) 활용 및 간이보험 확대 등을 통한 지원강화		
인프라 정비·유지 관리에 민간 자금·노하우 활용	제도 개선	• 컨세션방식 도입 검토	• 제도개선사항 계속검토	• 제도개선사항 계속검토
		• 도로·항만 등 공물관리권의 부분 민간개방	• 개별프로젝트 관련 제도개선	• 관련 제도개선
	개별 프로젝트	• 지자체·기업으로부터 신제도 제안모집	• 개별프로젝트 안전 확장·실시	• 추가 개별프로젝트 시행
		• 부두공사의 주식회사화 등 항만경영 민영화 추진		
		• 도로공간 오픈화(기존도로의 상하공간을 민간에게 개방) 등 민자유치에 의한 노후인프라 정비 추진		
		• 첨단 막(膜)처리기술 등 민간기술 활용 하수도사업 추진 및 포괄적 민간위탁		
		• 하천공간 오픈화(민간사업자의 하천부지 점용기준 완화) 추진		
		• 관민협력에 의한 지하가(地下街) 정비로 민간투자 유발 촉진		
		• 철도·역전광장 상공의 민간이용 허용 등, 관민협력에 의한 교통결절점 정비 촉진		
		• 음식점 설치 허용 등 도시공원 내 민간사업자 활용		
		• 국토교통성 직할주차장의 관라운영에 민간 노하우 활용		
		• 소수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추진		
		• 도로·하천구역을 민간사업자에게 대여하여 풍력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발전추진		
		• 광파이버 네트워크의 전송용량 일부를 민간사업자 이용 허용으로 갱신비용 절감		
		• 민간사업자에 의한 전선(電線)공동구도로관리케이블 정비관리 일원화 추진		
		• PPP(관민협력)를 통한 행정재산의 상업적 이용 촉진		

주: 컨세션(concession)방식이란 시설의 소유권 이전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인프라사업 운영·개발 권리를 장기간 부여하는 방식.

5) 주택·도시분야

전략		조기 실천사항(2011년 예산반영사업 포함)	2~3년 내 실천사항	장기방향	
대도시 이노베이션 창출 전략	대도시 국제 경쟁력 강화	국가전략프로젝트에 의한 도시재구축 및 원스톱형 관민협력체제 정비 • 관민협의회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실시체제 구축 • 용적률 등의 도시계획규제, 세제감면(외국기업에 한정) 등 혜택의 국제경쟁거점특구제도 신설 • 재개발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와 다수 토지소유자 간 조정 지원 •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* 추진	• 제도개정 및 시책 추진 • 전략프로젝트의 본격적 실시	• 지속적 도시경쟁력 강화방안 강구	
		대도시권전략 책정·추진 • 현행 수도권정비법 등을 「대도시권전략기본법(가칭)」으로 개편하고, 국가전략으로서의 대도시권전략 책정 추진(국가전략적 관점 강조)	• 관민협력에 의한 전략실천계획 수립·실시	• 대도시권 상황 및 시책효과 점검	
지역 잠재력 발현 전략	자발적 전략적 지역 도시 만들기	다양한 관민협력 주체에 의한 자발적·전략적 지역만들기 추진 • 관민협력에 의한 지역의 자발적 전략 제안 모집 및 지원 - 국가가 인정한 관민협력주체에 대한 준행정적 권한 부여 등	• 관민협력주체의 지역전략 제안 모집	• 전국적으로 자발적 지역전략 제안 모집	
		관민협력에 의한 지구단위의 도시재생 추진 • 관민협력조직에 대한 인재육성·자금·활동 지원제도 구축 • 민간의 참여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 부여 • 관민협동에 의한 전통마을 보전·활용 제도기반 구축	• 관민협력에 의한 새로운 개발수법 검토(TIF*수법 등)	• 각 지구의 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검토	
	컴팩트 시티 유도	도시기능서비스의 집약화를 통한 도심거주 추진 • 의료·복지시설의 시내 집약화 유도방안 강구 • 공공유재산의 유효활용 방안 보급	• 관련 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 검토	• 도심거주 추진 및 컴팩트시티 구축 • 우수사례의 전국 보급	
		컴팩트시티화와 병행한 에너지의 면적(面的) 유효이용 • 저탄소도시만들기 가이드라인 책정 • 하수열 등 미이용 에너지의 이용촉진을 위한 규제완화, 지원 • 전기자동차를 활용한 도시만들기 등 시범사업 추진	• 저탄소도시만들기 등 계속 추진		
주택 건축 투자 활성화 및 스톡 재생 전략	주택 시장 활성화	고품질 신축주택 공급 촉진 • 에너지절약, 내진, 배리어프리 등을 갖춘 주택 구입 지원확충 •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기준 재검토	• 관련제도 개선 및 시책 추진	• 주택시장 활성화 및 주택투자 확대	
		중고주택·리폼시장 정비 • 하자보험 가입 리폼 및 중고주택 구입 지원확충 • 리폼기술 향상 지원	• 리폼공사 관련 분쟁 처리체제 정비 등		
		관리 적정화를 통한 아파트스톡 재생 • 표준관리규약 등 아파트관리규칙의 재검토, 리모델링·재건축 촉진방안 검토		• 노후아파트 개수 재건축 촉진	
		• 건축확인심사 신속화 등을 위한 건축기준법 재검토	• 건축확인절차 개선		
	노인 주거 안정	•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노인임대주택(수발서비스 포함) 제도화	• 노인을 위한 주거대책 확보	• 친환경 주택·건축 스톡 대폭적 증가 *신축 주택·건물의 100% 에너지 절약화 실현	
		• 공공주택단지에 의료·복지시설 도입 관민협력 프로젝트	•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지역의 복지거점으로 재정비		
	친환경 주택 정비	• 주택·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일정보 작성	• 주택·건축물 신축 개수에 대한 지원 및 규제 강화		
		• 에코주택·에코빌딩 보급 촉진 및 대규모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			
		• 목조 주택 및 건축물 공급 촉진			
• 시가지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재건축 촉진방안 강구					

주: 1)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예시(도교·오사카 등의 국제도시에 각종 상징거리 조성, 도시하천 활용 친수공간네트워크 형성,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능 고도화·복합화, 대규모 공원의 리뉴얼을 통한 국제교류·투어리즘 진흥거점 조성, 컨벤션 및 연구개발기능 강화를 통한 국제교류거점 형성 등)

2) TIF=Tax Increment Financing

3. 시사점

- 일본 국토교통성 성장전략은 수립과정, 내용, 형식 등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
 - 철저한 자기반성에 기초하고 있으며, 격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급히 변화하여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전략이 수립됨
 - 시장경제 논리에 바탕하고 있으며, 궁극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
 - 물리적인 시설 확충보다 민자유치, 민영화, 규제완화, 조직개편, 제도정비 등과 같이 소프트한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
 -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하는 혁신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. 예를 들어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수도권정비법 등 기존의 「대도시권정비법」 대신에 「대도시권전략기본법(가칭)」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
 - 구체적이고 실천적임. 당장 2011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에서부터, 2~3년 내 실천사항, 장기 추진방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음
 - 성장전략 수립을 위하여 조직된 ‘국토교통성 성장전략회의’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, 특히 기업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서 현장감 있는 시책발굴이 가능함
 - 기업의 해외진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을 둘러싼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
- 일본 국토교통성의 성장전략 수립사례는 특히 국토해양부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
 - 국내에서도 현재 국토연구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한국해양연구원 등 국토해양분야 유관 6개 국책연구기관이 국토해양연구회를 조직하여 국토해양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모색 중임
 - 일본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성장전략 발굴 노력이 필요함

● 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이동우 수도권전략센터장 (dwlee@krihs.re.kr, 031-380-0198)